

<2022년 7월 22일 금요기도회 말씀>

1.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며 나타난다. 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 혼으로 나타나서 육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비유로 여러 가지로 보이며 깨닫게 해 준다.
2. 자기 마음과 생각이 육계에서는 육으로 나타나고, 신령한 세계에서는 혼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과 생각이 육으로 나타나 행하기도 하고, 혼으로 나타나 그 실상을 행하기도 한다.
3.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이 그대로 행하기도 하고, 육이 혼의 행함을 보고 느끼고 확실히 알고, 할 일을 더욱 행하기도 한다.
4. 자기가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것은 육도 혼도 느끼지 못하니 반응이 없다.
5. 평소에 생시에 보고 들은 것을 혼이 재연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혼은 특히 꿈에서 잘 본다.
6. 사람이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꿈에서 혼이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깨우쳐 주며 계시하기도 하신다.
7.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고 생각하고 행한 것들이 혼이나 육으로 그대로 반응한다. 그 반응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알고 행하게 된다.

8. 꿈은 하나의 영의 세계이니 영적 차원으로 보인다. 역시 비유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실체로 보이기도 한다.
9. 가령, 자기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자기 혼도 꿈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다닌다. 육신도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사람을 미워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혼을 통해 자기를 깨닫고,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10.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육으로, 혼으로 그대로 행한 대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깨달아라.
11. 어느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혼이 혼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다닐 때가 있다. 이는 자기 혼이 혼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 육신이 육의 세계를 보고 다니며 배우는 것과 같다.
12. 형제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행하신다. 직접 듣지 않으시면, 천사를 보내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기도의 내용대로 합당하면 행하신다.
13. 가령, 만 명이 어떤 것을 두고 기도를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 명이 기도한 것을 행해 주신다. 그러므로 진실로 기도하여라. 진실한 기도는 듣고 화답하신다.
14. 만 명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는 단계까지 못 미쳐서 못 들

어 주셨다. 그중의 한 명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심으로 만 명의 기도를 다 해결해 주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15. 기도는 항상 필요하다. 자기를 위한 기도, 섭리사를 위한 기도, 지도자들과 사명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해 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만큼 대해 주신다.

16. 기도할 때 꼭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꼭 들어 주신다. 기도를 안 들어 주실까 걱정하지 말고 진실로 기도하여라.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깨닫게 해 주신다.

17. 기도를 안 하는 자는 마치 자기의 할 일을 두고 안 하는 자와 같아서 매일 표가 난다. 기도하는 자는 매일 자기 할 일을 하는 자이므로 매일 기도한 표가 난다.

18.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19. 기도는 겹줄을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기도하여 겹줄을 만드니, 누가 끊을 자가 있겠느냐.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20. 기도를 안 하는 자는 갈 길을 잊은 자와 같다. 기도하면 갈 길이 생각나서 또 가게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와서 보신다. 부르는 자에게 꼭 나타나신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모습을 다 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매번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고,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도 목적만 이뤄지면 되기 때문에 기도를 듣고 목적을 행해 주신다.

22. 기도하면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인의 기도를 들으러 직접 오지 않으셔도, 어디에 있든지 그 기도를 꼭 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심은 절대적이다. 기도를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어떻게 행해 주시겠느냐.

23.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자기를 알리는 일이니 반드시 들어 주신다. 기도를 듣고 꿈으로도 생시로도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나니,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히 하여라.